

vol. 20

2020. 07

항만과 산업

국내 항만 및 품목 동향

www.kmi.re.kr

발행일 2020. 7. 27 편집&발행인 장영태

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

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(동삼동)

전화 051) 797-4800 팩스 051) 797-4810



국내 항만 및
품목 동향

- | | |
|-------------|----|
| 1. 국내 항만 동향 | 02 |
| 2. 품목별 동향 | 09 |

주요 항만 동향



- 부산항, 무인 자동화 기반 스마트 물류시스템 개발 착수
- 인천항, 북항 배후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
- 울산항, 7월부터 부두 출입 시 안전보호장비 착용 의무화 시행
- 포항항, 영일만항 인입철도 상업운행 개시
- 동해·묵호항, 묵호지구 재개발사업 주민협의체 운영

주요 품목 동향



- 시멘트, 수입 석탄재 대체 기술 개발 착수
- 철광석,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한 BHP사의 철광석 거래 성공
- 기타광석,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경기부양정책 효과로 주요광석 가격 상승세
- 고철, 공급 대비 수입 비중 역대 최저치 기록
- 자동차 업계,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수요 감소에 따른 인력 감축 계획 발표

1. 국내 항만 동향

1) 부산항

① 무인 자동화 기반 스마트 물류시스템 개발 착수¹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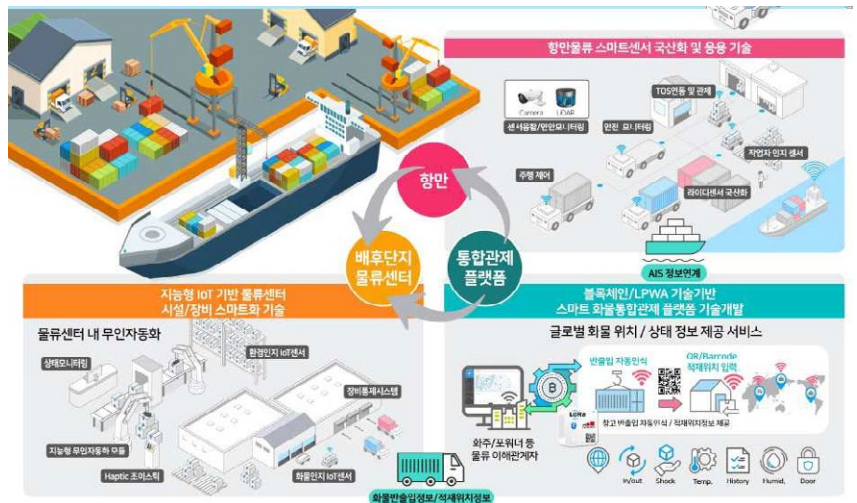
부산항만공사(BPA)는 지난 7월 6일 '지능형 무인자동화 스마트물류 시스템 구축'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됨

- '지능형 무인자동화 스마트물류 시스템 구축'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부산시가 지원하는 「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」의 일환으로 총 9개의 유관기관 및 전문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임
- 사업기간은 총 5년('20년 6월~'25년 3월)으로 원천 기술 개발에 3년, 사업화를 위한 R&D를 2년간 진행할 계획으로 국비 57억 원과 시비 57억 원이 투입됨
- '지능형 무인자동화 스마트물류 시스템 구축' 사업의 세부 R&D는 스마트 센터 국산화, 지능형 IoT 기반 물류 센터 시설 및 장비의 스마트화 등이 있음

국가 R&D 과제 유치를 통해 항만현장에 즉시 도입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여 부산 지역의 핵심 산업인 항만물류분야의 경제 및 일자리 부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

- BPA는 항만자동화로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 감소와 함께 연관 사업 성장으로 약 300개의 기업이 신규 창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, 항만운영비도 약 37%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
'지능형 무인자동화 스마트물류 시스템 구축' 사업개념도



자료 :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(2020.7.6)

② BPA, 산업통상자원부의 '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' 사업의 일환인 야드트랙터 친환경·안전 신기술 개발 수행자 최종 선정²⁾

부산항만공사(BPA)는 '전기구동형 항만 야드트랙터용 자동조향기반 사고회피 시스템' 연구개발과제 수행자로 지난 7월 7일 최종 선정됨

1)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(2020.07.06.), [https://www.busanpa.com/kor/Board.do?mode=view&dx=25607&mCode=MN1445\(2020.07.20. 검색\)](https://www.busanpa.com/kor/Board.do?mode=view&dx=25607&mCode=MN1445(2020.07.20. 검색))

2)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(2020.07.06.), [https://www.busanpa.com/kor/Board.do?mode=view&dx=25607&mCode=MN1445\(2020.07.20. 검색\)](https://www.busanpa.com/kor/Board.do?mode=view&dx=25607&mCode=MN1445(2020.07.20. 검색))

- 연구과제의 핵심은 전기구동 야드트렉터 개발과 장애물 인식기술/상황 추적 기술 등 사고 회피가 가능한 통합 제어 기술을 개발하는 것임
- 향후 3년간 국비를 포함한 75억이 사업에 투입되며 BPA를 포함한 6개의 전문기관 및 유관 기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임

2) 인천항

① 북항 배후단지, 우선협상대상자 선정³⁾

- ☀ 인천북항배후단지 북측 입주기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영림목재(주), (주)우드뱅크, (주)씨맥 등 총 3개 기업이 선정됨
- 입주 대상부지는 당초 4개 필지였으나, B필지의 경우 1개 기업 단독입찰로 유찰되어 A필지(17,826㎡), C필지(17,676㎡), D필지(16,911㎡) 등 총 3개 필지를 입주대상으로 함
- 평가 항목은 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(20점), 사업능력(20점), 화물 실적 및 유치 계획(30점), 건설계획(5점), 고용 및 물류시스템 구축 계획(15점), 환경·안전 및 사회적 기여(10점)로 구성됨
- 향후 우선협상대상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세부 사업내용 등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최종 사업추진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, 비관리청항만공사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상부시설 착공을 시행할 예정임
- 향후 인천항만공사는 북항배후단지 북측을 고부가가치 화물유치의 핵심기지로 육성할 예정이며, B부지 및 1차 공급에서 제외된 3개 부지(E,F,G)의 재공급 일정을 조속히 수립할 계획임

인천 북항배후단지 북측 입주기업 모집 대상부지



자료 :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(<https://www.icpa.or.kr/article/view.do?articleKey=16747&boardKey=217&menuKey=400&currentPageNo=1>)

② 아암물류2단지 I-1단계, 종합보세구역 예정지로 지정⁴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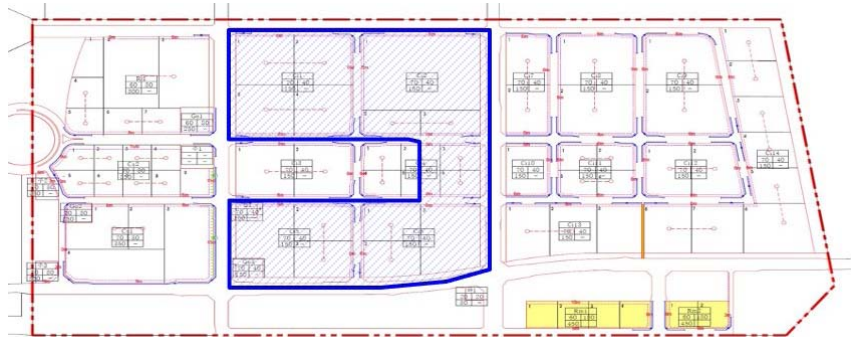
- ☀ 관세청은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I-1단계를 종합보세구역 예정지로 지정·고시함
- 최근 인천항만공사는 아암물류2단지를 국제전자상거래 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I-1단계 총 부지면적 557,150㎡ 중 약 458,254㎡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함
- '20년 7월 1일 관세청이 동 단지에 대한 지정요건 및 현장실사 검토를 통해 종합보세구역으로 최종 지정함에 따라 공사는 '20년 말까지 I-1단계 부지조성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임

3)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(2020.07.07), <https://www.icpa.or.kr/article/view.do?articleKey=16747&boardKey=217&menuKey=400&currentPageNo=1> (2020.07.15. 검색)

4)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(2020.06.30), <https://www.icpa.or.kr/article/view.do?articleKey=16725&searchSelect=title&boardKey=217&menuKey=400&currentPageNo=2> (2020.07.15. 검색)

아암물류2단지 종합보세구역
예정지역 위치(458,254㎡)

- 이에 따라 대상부지는 부지조성공사 완료 이후 약 3년간 종합보세구역 예정지로 운영될 계획임
- 향후 공사는 해당 종합보세구역 내에 국제물류센터 운영 기업을 유치하여 인천항을 전자 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임



자료 :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(<https://www.icpa.or.kr/article/list.do?menuKey=400&boardKey=217>)

3) 여수·광양항

① 여수광양항만공사, 스마트 유지보수용 바지선 리프트 특허 등록⁵⁾

여수광양항만공사, 바지선용 스마트 유지보수 리프트 개발 및 특허 등록 완료함

- 본 리프트 장비는 항만시설의 점검 또는 진단 및 유지보수 시 필요한 해상 장비로서 고도 조절 가능하고 동시에 휠 등을 이용한 이동성 확보 및 고정 가능해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음
- 기존 해상에서 사용되는 소형 선박으로는 정밀한 작업이 어려웠으나, 리프트 장비를 바지선에 설치함으로써 그동안 점검이 곤란한 부분도 가능해지는 등 안정성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
- 이 밖에도 YGPA는 작년부터 특허 기반 R&D 사업을 추진해 5건의 특허 출원을 하는 등 해운·항만분야 R&D 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

② 여수광양항만공사, 건설현장용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구축⁶⁾

여수광양항만공사(YGPA)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「YGPA 건설현장 대응 매뉴얼」을 수립·시행한다고 밝힘

- 이는 대전광역시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건설현장 내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따른 것임
- YGPA는 여수·광양항 건설현장 내 코로나19 행동 수칙을 포함해 의심 및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주체별 가이드라인, 대응 전담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 매뉴얼을 구축함
- YGPA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설현장 매뉴얼 시행을 통해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하며, 향후 건설현장 점검 및 지원활동 등 사전예방을 통한 안전한 방역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힘

5) 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(2020.07.13),
[http://www.ygpa.or.kr/kr/ygpa/public_corporation_news/public_corporation_news/?boardId=bbs_0000000000000213&mode=view&cntId=716&category=\(2020.07.20. 검색\)](http://www.ygpa.or.kr/kr/ygpa/public_corporation_news/public_corporation_news/?boardId=bbs_0000000000000213&mode=view&cntId=716&category=(2020.07.20. 검색))

6) 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(2020.07.17),
[http://www.ygpa.or.kr/kr/ygpa/public_corporation_news/public_corporation_news/?boardId=bbs_0000000000000213&mode=view&cntId=719&category=\(2020.07.20. 검색\)](http://www.ygpa.or.kr/kr/ygpa/public_corporation_news/public_corporation_news/?boardId=bbs_0000000000000213&mode=view&cntId=719&category=(2020.07.20. 검색))

4) 울산항

① 울산항만공사,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무인 화물트램 연구개발 MOU 체결⁷⁾

- ☀ 울산항만공사는 스마트 항만 구축을 위한 항만과 내륙물류 연계강화의 일환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무인 화물트램 연구개발을 추진함
-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 중 하나로 SOC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항만 분야에 있어 스마트화를 추진 중에 있음
- 울산항만공사는 철도기술연구원과의 이번 협약으로 철도연이 개발한 '랜드마크 가이드 기반 무인주행 제어 기술'을 화물 트램에 적용하는 기획 연구를 추진할 예정임
- 울산항만공사는 이번 무인 화물트램 개발 기술 실증화로 항만내 물류 활동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울산항 맞춤형 스마트 항만물류 사업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
- 철도기술연구원은 공공교통 분야 연구로 한국 철도기술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임

② 울산항만공사, 7월부터 부두출입시 안전보호장비 착용 의무화 시행⁸⁾

- ☀ 8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시행하며 보호장비 미착용자는 부두출입을 제한할 예정임
- 현재 울산항의 하루 평균 부두 출입자는 약 3천여 명에 이르며 항만공사는 보호장비 의무 착용을 시행하여 보호장비 미구비자는 부두 출입구에서 임시 대여 가능하도록 조치함
- 계도기간 이후 9월 1일부터는 보호장비 미착용자는 부두출입을 전면 제한할 예정임

7) 울산항만공사 보도자료(2020.06.25), [https://www.upa.or.kr/bbs/view.do?bbsId=BBS_000000000000000060&mId=0010050020010000000&dataId=10448\(2020.7.16. 검색\)](https://www.upa.or.kr/bbs/view.do?bbsId=BBS_000000000000000060&mId=0010050020010000000&dataId=10448(2020.7.16. 검색))

8) 울산항만공사 보도자료(2020.06.30.), [https://www.upa.or.kr/bbs/view.do?bbsId=BBS_000000000000000060&mId=0010050020010000000&dataId=10450\(2020.6.30. 검색\)](https://www.upa.or.kr/bbs/view.do?bbsId=BBS_000000000000000060&mId=0010050020010000000&dataId=10450(2020.6.30. 검색))

5) 평택·당진항

① 경기평택항만공사, 중국 위해항그룹유한공사와 전략적 MOU 체결⁹⁾

- ☀ 코로나19로 인해 한중교류가 중단된 상황에서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MOU를 체결함
-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웨이하이(위해)항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'16년에 위해항그룹유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'19년 12월에 산동성항구그룹과 MOU를 체결한 바 있음
- 웨이하이항은 산동성(산둥성)에 위치해 있으며 평택·당진항과는 컨테이너 정기선 항로 2개(장금상선 PXS, PDS4) 항로와 카페리 항로 1개(교동훼리)가 개설되어 있음

☀ 평택·당진항 컨테이너 물동량의 중국 비중이 높고 웨이하이 국제여객 수요가 많아 장기적인 협력·발전이 필요함¹⁰⁾

- '19년 기준, 평택·당진항 컨테이너의 84.8%는 중국과의 교역으로 발생하고 있으며, 이 중 56.5%는 컨테이너선, 43.5%는 국제카페리를 통해 수송됨
- '19년 기준, 평택항 국제카페리 항로의 평택~웨이하이 여객 비중은 31.1%, 화물 비중은 22.4%를 차지함
- 다만 평택·당진항과 중국 간 개설된 5개의 국제카페리항로는 코로나19 사태로 설연휴 이후에는 여객수송이 중단된 상황이며 화물운송만 유지되고 있음

9) 경기평택항만공사 보도자료(2020.06.29.), [http://www.gppc.or.kr/gppc/board/boardView.do?menuId=101020101&cms_site_id=KOR&cms_group_id=101&site_lang=%2Fgppc%2FmembersvcMainview01.do%3Fcms_site_id%3DKOR&searchCondition=all&searchKeyword=&survey_ty=&site_link=%EC%84%A0%ED%83%9D%ED%95%98%EC%84%B8%EC%9A%694&boardId=101020101&dataId=3864&pageIdx=1\(2020.07.14. 검색\)](http://www.gppc.or.kr/gppc/board/boardView.do?menuId=101020101&cms_site_id=KOR&cms_group_id=101&site_lang=%2Fgppc%2FmembersvcMainview01.do%3Fcms_site_id%3DKOR&searchCondition=all&searchKeyword=&survey_ty=&site_link=%EC%84%A0%ED%83%9D%ED%95%98%EC%84%B8%EC%9A%694&boardId=101020101&dataId=3864&pageIdx=1(2020.07.14. 검색))

10)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여객통계, [http://pyeongtaek.mof.go.kr/article/list.do?menuKey=459&boardKey=26\(2020.07.14. 검색\), 항만수요예측센터 제작성](http://pyeongtaek.mof.go.kr/article/list.do?menuKey=459&boardKey=26(2020.07.14. 검색), 항만수요예측센터 제작성)

6) 대산항

① 대산지방해양수산청, 충남지역 23개소 연안정비사업 추진¹¹⁾

- ☞ 해양수산부 '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' 확정고시로 향후 10년간 지자체와 함께 1,271억 원을 투자하여 23개 연안정비사업 시행할 예정임
-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은 '29년까지 2조 3천억 원을 투자하여 238개 연안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서산, 태안, 당진 등 충남지역에 연안보전 19개 사업(1,160억 원), 친수연안 4개 사업(114억 원)을 추진하기로 함
- 충남지역은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으로 지난 10년간 893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6개 사업이 진행 중임

11)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(2020.06.03.), [http://daesan.mof.go.kr/article/view.do?articleKey=7383&searchSelect=title&boardKey=66&menuKey=472&currentPageNo=2\(2020.07.16. 검색\)](http://daesan.mof.go.kr/article/view.do?articleKey=7383&searchSelect=title&boardKey=66&menuKey=472&currentPageNo=2(2020.07.16. 검색))

12)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(2020.06.03.), [http://daesan.mof.go.kr/article/view.do?articleKey=7421&searchSelect=title&boardKey=66&menuKey=472&currentPageNo=1\(2020.6.22. 검색\)](http://daesan.mof.go.kr/article/view.do?articleKey=7421&searchSelect=title&boardKey=66&menuKey=472&currentPageNo=1(2020.6.22. 검색))

② 연안여객 안전을 위한 안흥-가의도 차도선 접안시설 완공¹²⁾

- 총사업비 37억 원을 투입하여 최신 부잔교, 도교, 차량대기소, 친수호안 등을 조성하고 매표소와 대합실까지 마련함
- '19년 취향한 가의도호의 선착장 이용에 불편을 겪는 어민, 여객, 선사 등을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설계하였으며 올해 6월 완공함

7) 포항항

① 영일만항 인입철도 상업운행 개시¹³⁾

- ☞ 7월 1일부터 포항영일만항 인입철도의 상업운행이 개시되면서 포항항의 물류운송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
- 영일만항 인입철도는 지난 '13년 11월 착공하여 지난해 12월 완공되었으며 총 1,696억 원의 국비를 투자하여 포항역~영일만항 11.3km 구간에 대해 철도 개설 및 철송장을 설치함
- ☞ 매일 20피트 컨테이너 40개를 주 6회 운송할 계획이며 주요 품목은 동남아지역에서 수입되어 발전소에 납품되는 목재펠릿임
- 지금까지는 부산항을 통해 수요처까지 철도로 운송되어 왔음
- ☞ 포항시와 경북도는 상업운행을 시작으로 올해 주 20회 이상 운행을 위해 대형화주 및 코레일 측과 협의를 추진 중이라 밝힘
- ☞ 그동안 트럭운송에만 의존하던 육상운송 체계가 열차 운송도 가능해짐에 따라 대구·경북권과 강원권 내륙 대량화물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

13) 포항시청 보도자료(2020.07.03), [https://www.pohang.go.kr/news/bnews.do?enc=Zm5jdDF8QEB8JTJGJmJzJTJGbmV3cyUyRjU4OSUyRjQlODcwMlUyRmFydGNsVmldy5kbyUzRnBhZ2UIM0QyJTl2c3JjaENVbHVtblUzRClUyNnNyY2hXcmQlMQlMJZiYnNDI0bWVudC5UzRClUyNmlzVmldld01pbmUIM0RmYWxzZSUyNmNxc3Rnb2RlJTNEJTl2\(2020.07.03. 검색\)](https://www.pohang.go.kr/news/bnews.do?enc=Zm5jdDF8QEB8JTJGJmJzJTJGbmV3cyUyRjU4OSUyRjQlODcwMlUyRmFydGNsVmldy5kbyUzRnBhZ2UIM0QyJTl2c3JjaENVbHVtblUzRClUyNnNyY2hXcmQlMQlMJZiYnNDI0bWVudC5UzRClUyNmlzVmldld01pbmUIM0RmYWxzZSUyNmNxc3Rnb2RlJTNEJTl2(2020.07.03. 검색))

8) 동해·목호항

14) 동해시 보도자료(2020.07.17), [### ① 목호항 재개발사업 주민협의체 운영^{14\)}](http://www.dh.go.kr/pages/sub.htm?mode=view&mv_data=aWR4PTk4MTEmbmF2X2NvZGU9ZGgxNDcwNzU3NzgwJnNOYXJOUGFhZT0wJmXpc3RObz0yNDEmdGFibGU9Y3NfYmJzX2RhdGFfcmlVwb3J0JmNvZGU9cmVwb3J0JnNlYXJjaF9pdGVtPWVbnRlbnQmc2VhcmNoX29yZGVyPeuste2YuO2VrSZvcmRld9saXNOP5ZsaXNOX3NjYXlPSZ2aWV3X2xldmVsPSZ2aWV3X2NhdGU9JnZpX2dfY2F0ZTI9JnBhcnQ9(2020.07.20. 검색)</p>
</div>
<div data-bbox=)

☞ 동해시, 목호항 재개발사업 주민협의체 운영 예정

- 동해시는 목호항 재개발(2, 3단계) 사업 계획 수립에 대한 시민 의견 청취를 위해 「목호항 재개발사업 주민협의체」를 구성할 예정임
- 주민협의체는 7월부터 9월까지 20명 내외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될 예정이며, 목호항 재개발사업에 대한 토론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해 노력할 예정임
- 동해시 관계자는 지역주민, 어업인 및 목호항 재개발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·기업들의 의견이 향후 제3차 항만재개발 계획 등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언급함

9) 군산항

15) 더벨(2020.06.23),

① 양곡 전용부두 배후에 입지한 양곡 저장시설 사일로 시설 증설 완료¹⁵⁾

☞ 양곡 하역과 보관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저감과 사료 수요 증가에 따른 저장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사일로(silo) 증설이 지난 6월 말 완료됨

- (주)선광은 전북지역 축산농가 등의 사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'13년 증설했던 사일로 3호기에 이어 올해 4호기 증설을 완료하였음
- 3호기와 4호기의 저장능력은 각각 8만 5천 톤과 6만 톤으로 4호기 증설에 3년간 약 1천억 원이 투입되었음
- 추가 사일로 시설 증설 완료로 군산항의 일일 저장능력은 76만 톤으로 상향 조정되었음
- (주)선광은 향후 인구 감소 등의 요인으로 곡물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추가 사일로 증설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힘

10) 목포항

16) 목포시 보도자료(2020.07.16),

① 목포시, 신재생에너지산업 전진기지 추진¹⁶⁾

☞ 목포시는 정부의 그린뉴딜과도 일치하는 '핵심 미래전략산업'인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추진하고 있음

- '19년 11월, 목포시 대양산단과 목포신항 일원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됨
- 해당 단지에는 에너지 특화 기업에 지원되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, 각종 보조금 지원 비용 확대,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됨

☞ 신항은 신재생에너지 거점항, 신항 배후부지 및 대양산단을 에너지 관련 기자재·부품 생산 단지로 육성할 계획임

- 전라남도도는 서남해 8.2GW의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, 목포시는 해상 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을 추진하고 있음

- 지원부두 1선석(300m, 철재부두 3만 톤)과 배후단지 26만 7천㎡를 조성하는 것이 목포시의 계획임
- 대양산단에는 해상풍력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이 구축될 계획임

남항은 세계최초 친환경 선박 연구개발·실증단지로 조성할 계획임

- 목포 남항은 전기 등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선박을 연구·개발하고 실증할 수 있는 국내 첫 친환경선박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임
- 올해 4월 해양수산부 ‘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개발사업’이 공모에 선정되어 ‘24년까지 5년 동안 약 450억 원(국비 268억 원 등)이 투입될 예정임
- ‘24년까지 전기추진 차도선 개발 및 실증 완료시, 연안 운항 차도선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어선 및 다른 선박도 전기추진선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
- 전기선박 신산업은 조선(선박 건조), 해운, 기자재(배터리, 모터, 배전시스템), 시스템 운영·관리(배터리 충전, 유지·보수, 모니터링) 등 다양한 연관 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

다만, 목포신항의 신규부두 건설은 해상풍력 사업 기간과 선석활용성을 고려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

- 신항에 신규부두 건설이 가능한 지역은 자동차부두 복축이며, 5만 톤급 자동차부두 1선석이 계획되어 있고 매립이 필요하므로 착공·준공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
- 또한, 목포항은 정기선 1개 노선을 제외한 모든 컨테이너 노선이 중단된 상황이므로 기존 부두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

11) 마산항

① 마산항 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 협의회 개최¹⁷⁾

창원시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7월 9일 마산항 친수공간 조성·관리를 위한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함

- 마산항 친수공간 조성·관리협의회는 친수공간 조성 등 마산지역 해양, 항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임
-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사업비 892억 원을 투입하여 마산항 서항지구 및 방재언덕 친수 공간에 생활체육시설, 물놀이장, 야외무대, 레포츠시설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여가활동 및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임
- 해당 사업은 올해 연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
17) 창원시청 보도자료(2020.07.09.), <https://www.changwon.go.kr/portal/bbs/view.do?bidx=642187&ptidx=108&mlid=0201020000>(2020.07.10. 검색)

2. 품목별 동향

1) 컨테이너¹⁸⁾

① '20년 5월 코로나19로 경색 되었던 미국, 중국, EU 경기가 다소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

☞ 미국은 소비와 고용이 점차 회복되면서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며 중국의 5월 산업생산은 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음

- 중국 산업생산(전년 동월 대비): 3월(-1.1%) → 4월(+3.9%) → 5월(+4.4%)

☞ 반면 일본의 산업생산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경기회복이 미국, 중국과 달리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

- 일본 산업생산(전년 동월 대비): 3월(-3.7%) → 4월(-9.8%) → 5월(-8.9%)

② 우리나라는 소매판매가 증가한 반면 수출 부진으로 5월 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6.9% 감소함

☞ 5월 국내 소매판매는 승용차와 같은 내구재와 비내구재 모두 증가하며 전년 대비 1.7% 증가함

☞ 반면 수출금액(6월 기준)은 전년 동월 대비 10.9% 감소한 392억 달러(통관 기준)를 기록함, 지난 5월 대비 감소폭이 줄어들었으나 주력 수출품이 자동차와 석유제품의 수출이 여전히 부진함

☞ 국내 5월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, 기계 장비 등의 생산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9.8% 감소함

18) 한국은행 보도자료(2020.07.16.), [http://www.bok.or.kr/portal/tbbs/P0000559/view.do?nttId=10059300&menuNo=2006908&pageInd ex=2\(2020.07.20. 검색\)](http://www.bok.or.kr/portal/tbbs/P0000559/view.do?nttId=10059300&menuNo=2006908&pageInd ex=2(2020.07.20. 검색))

2) 양곡

① '20년 6월 세계 곡물 수입단가는 품목별로 다른 양상을 나타냄, 3/4분기 곡물 수입단가지수는 2분기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¹⁹⁾

☞ 식용 밀과 콩의 6월 수입단가는 전월 대비 소폭 상승(+0.5%)한 반면 옥수수의 수입단가는 전월 대비 1.7% 하락한 217달러(톤당)를 기록함

☞ 사료용 곡물은 대부분의 세부품목에서 하락세를 기록, 밀(222달러/톤)과 대두박(369달러/톤)의 수입단가는 각각 전월 대비 2.8%, 0.1% 하락함

- 사료용 옥수수의 6월 수입단가는 214달러/톤으로 5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

☞ 한국농촌경제연구원(KREI)에 따르면 '20년 3/4분기 곡물수입단가지수는 전 분기 대비 식용과 사료부문 모두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

19) 한국농촌경제연구원, 국제곡물관측 7월호, [http://aglook.krei.re.kr/jsp/pc/front/observe/monthlyReport.jsp?ovr_item_code=OVR0000000073&prt_ovr_item_code=OVR0000000071\(2020.7.20. 검색\)](http://aglook.krei.re.kr/jsp/pc/front/observe/monthlyReport.jsp?ovr_item_code=OVR0000000073&prt_ovr_item_code=OVR0000000071(2020.7.20. 검색))

- 식용 수입단가지수(CIF, 원화기준)는 95.5로 전분기 대비 6.3%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사료용의 수입단가지수도 전분기 대비 4.4% 하락한 95.6으로 예상함

3) 시멘트

① 시멘트 업계, 수입 석탄재 대체 기술개발 착수²⁰⁾

- ✎ 한국시멘트협회는 수입석탄재 사용량 축소 및 국산 석탄재 활용 확대를 위한 수입 석탄재 대체 기술개발에 착수할 예정
- 최근 시멘트 업계는 국산 석탄재의 레미콘 업계 우선공급 시장구조로 인한 수급 부족 등 시멘트 제조에 필요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옴
- 또한 '19년 8월 이후 정부의 국산 석탄재 사용 확대정책 시행 및 천연자원인 점토광산 개발 등 대체원료 확보 발표 등으로 수입 석탄재의 원활한 확보에 제한이 있는 상황임
- 이에 시멘트협회는 최근 『일본산 수입 석탄재를 국내산 석탄재로 대체하기 위한 시멘트 공정 시스템 구축 및 원료화 기술 개발』 사업을 본격 착수하여 '23년 12월까지 기술개발의 완료 계획을 발표함
- 해당 기술은 매립 석탄재 및 바닥재 모두 시멘트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신규 기술 개발이 목표이며,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 및 회사, 관련 연구기관의 참여로 연구가 추진될 예정임
- 기술개발 사업 완료시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매립 석탄재 중 연간 약 90톤 가량 사용이 가능 하며, 안정적인 시멘트 생산 및 환경보존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20) 건설경제신문(2020.06.25), http://cnews.co.kr/m_home/view.jsp?idxno=202006251427274210850(2020.07.15. 검색)

4) 모래

① 부산 및 수도권, 레미콘 납품가격조정 가시화²¹⁾

- ✎ 최근 대한건설자재직협회의는 부산지역 레미콘업체와의 단가협상을 실시하였으며, 레미콘 가격을 기존 m³당 7만 3,700원에서 7만 6,4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함
- 이번 가격 인상은 '20년 들어 약 20% 인상된 운반비로 인한 부산 향토 레미콘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주요 건설사들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단행된 조치임
- ✎ 한편 수도권의 경우에도 7월 1일 이후 지속된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의 운송중단 집단행동으로 해당 지역 레미콘 업체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협의회와 업계 간 레미콘 가격 협상이 진행 중에 있음
- 특히 수도권 레미콘사들은 최근 해당 지역 운전기사들과 운반비 10% 인상에 합의함에 따라 레미콘 가격도 인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음
- 현재 수도권의 m³당 레미콘 협정가격은 기준가인 7만 580원의 약 94%인 6만 6,300원이며, 레미콘업계는 기준가의 약 97%를 주장하는 반면 건설업계는 기존 가격 동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
- 반면 부산지역과 수도권은 레미콘 수급상황 및 단가가 다르며,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 도심 및 경기 외곽 간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간 레미콘 가격의 차등적 적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

21) 건설경제신문(2020.07.15.), http://www.cnews.co.kr/m_home/view.jsp?idxno=202007151321518460568(2020.07.15. 검색)

5) 석탄

① 대한석탄공사, 온실가스 저감 지속 추진²²⁾

☞ 대한석탄공사, 온실가스 지속 감소를 위한 노력을 통해 사회적 책임 실현

- 대한석탄공사는 발표자료(2020.07.20.)를 통해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해 지난 7월 2일 배출권 4만 톤을 판매했다고 밝힘
- 이는 지난해 한국남동발전(주)에 온실가스 배출권 2만 톤을 판매한 이후 두 번째로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수익 창출임
-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할당 지정업체인 대한석탄공사는 효율화사업, 친환경 장비도입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을 달성함
- 대한석탄공사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서 기후 위기를 생각하고, 강화되는 정부의 배출권 거래제 감축목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생산장비 효율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꾸준히 실현할 예정이라고 밝힘

22) 대한석탄공사 보도자료(2020.07.20.), https://www.kcoal.or.kr/board/board_view.php?view_id=940&board_name=news&page=1&search_category=%EB%B3%B4%EB%8F%84%EC%9E%90%EB%A3%8C(2020.07.20. 검색)

6) 철광석

① BHP사,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한 철광석 거래²³⁾

☞ 글로벌 철광석 업체인 BHP사가 캐나다의 Minehub Technologies사의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중국과 첫 철광석 거래를 완료함

- Minehub사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계약, 유통, 재무 등 전반적인 거래 과정을 통합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등을 연결하는 스타트업 기업임

☞ 해당 플랫폼은 광공업 공급망을 현대화하여 화물의 실시간 추적, 자동화, 간소화된 신용관리, 페이퍼리스 거래 등을 통해 투명성과 추적성을 높임

☞ 당사는 현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래시장의 비대면화·디지털화가 가속되는 상황을 감안하며 올 4분기 안정성과 투명성이 향상된 플랫폼을 추가 공개할 계획이라 밝힘

② '20년 철광석 수요 전년 대비 2.8% 감소 전망²⁴⁾

☞ GlobalData사는 코로나19에 따른 광산업체들의 감산 및 조업 중단 등에 따른 영향으로 '20년 철광석 수요가 전년 대비 2.8% 감소한 20.5억 톤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함

☞ 철광석 수요의 약 17%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의 부진이 철광석 수요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

☞ 한편, '24년 철광석 수요는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연평균 1.3% 증가하여 21.9억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

23) 한국자원정보서비스(2020.07.01.), [https://www.kores.net/komis/trend/dailynews/resources/trendList.do?se_cd=130\(2020.7.15. 검색\)](https://www.kores.net/komis/trend/dailynews/resources/trendList.do?se_cd=130(2020.7.15. 검색))

24) 한국자원정보서비스(2020.07.06.), [https://www.kores.net/komis/trend/dailynews/resources/trendList.do?se_cd=130\(2020.07.15. 검색\)](https://www.kores.net/komis/trend/dailynews/resources/trendList.do?se_cd=130(2020.07.15. 검색))

7) 기타광석

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, 경기부양정책 효과로 주요광석 가격 상승세²⁵⁾

- 중국과 미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의 효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속광물 가격 상승세
- ‘동’은 미국과 중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따른 투자수요 확대 및 페루 등 주요 생산국의 생산차질로 인해 가격이 상승함
- 이에 따라 6월 평균 가격은 전월 대비 9.7% 상승한 톤당 5,742달러를 기록함
- 다만, '20년 전기동 수급편더멘털은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공급과잉이 전망됨

📌 국제유가 상승, 미국과 중국의 인프라 확대정책 등에 따라 아연 가격 상승세

- 아연시장은 국제유가 상승 및 미국과 중국의 인프라 확대 등 경기부양책의 유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심리 회복으로 가격이 상승함
- 다만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충격으로 정련아연 수급 편더멘털이 공급과잉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가격 상승 압력이 부분적으로 상쇄될 전망이다
- 6월 아연 평균가격은 전월 대비 2.9% 상승한 톤당 2,021달러를 기록함

📌 코로나19사태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책의 효과로 니켈 가격 상승

- 미국, 중국 등의 경기부양책과 인도네시아 원광 금수조치,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캐나다, 남아공, 마다가스카르 등의 니켈 생산 차질로 인해 니켈 가격이 상승함
- 6월 국제유가도 전월 대비 34.9% 상승하면서 원자재 가격상승을 견인하고 있고 중국의 전기차 산업 보조금 연장 및 생산량 할당체계 개편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
- 이에 따라 니켈의 6월 평균 가격은 전월 대비 4.7% 상승한 톤당 12,703달러를 기록함

25) 한국광물자원공사, 자원시장 월간동향(제 20-7호), [https://www.kores.net/komis/trend/strategy/resources/trendList.do?se_cd=157\(2020.07.17. 검색\)](https://www.kores.net/komis/trend/strategy/resources/trendList.do?se_cd=157(2020.07.17. 검색))

8) 목재

① 세계 목재 산업 동향(2020년 5월)²⁶⁾

📌 수요동향(감소 추세)

- 중국의 '20년 1분기 부동산개발 총 투자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7.7% 감소함
- 독일건설연맹은 건축수요 감소 예상하고 있음
- '20년 4월의 미국 주택착공은 전월 대비 30.2%, 전년 동월 대비 29.7% 감소함
- '20년 3월 일본 주택착공은 전년 동월 대비 7.6% 감소함

📌 수출·수입동향(감소 추세)

- 중국의 '20년 4월 누적 목재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원목 17%, 제재목 14% 감소함
- 뉴질랜드의 '20년 4월 원목 수출량은 전년 동월 대비 69% 감소함
- 호주의 '20년 4월 누적 목재(목재칩, 원목, 제재목) 수출은 감소함
- 베트남의 '20년 4월 목재 제품 수출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6% 증가함

26) 산림청 해외목재유통정보(2020.06.26.), [http://www.forest.go.kr/kfswb/cop/bbs/selectBoardArticle.do?nttid=3146631&bbsId=BBSMSTR_1067&pageIndex=1&pageUnit=10&searchtitle=title&searchcont=&searchkey=&searchwriter=&searchdept=&searchWrd=&ctgryLrds=&ctgryMdcIs=&ctgrySmcls=&ntcStartDt=&ntcEndDt=&orgId=&mn=NKFS_02_01_11_05\(2020.07.15. 검색\)](http://www.forest.go.kr/kfswb/cop/bbs/selectBoardArticle.do?nttid=3146631&bbsId=BBSMSTR_1067&pageIndex=1&pageUnit=10&searchtitle=title&searchcont=&searchkey=&searchwriter=&searchdept=&searchWrd=&ctgryLrds=&ctgryMdcIs=&ctgrySmcls=&ntcStartDt=&ntcEndDt=&orgId=&mn=NKFS_02_01_11_05(2020.07.15. 검색))

📌 국내 목재 산업 영향

-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 영향보다는 '19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매출 감소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됨
- 중국의 건설경기 부진 및 제재소 재산성 악화로 제재소 가동률이 50%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원목가격이 하향 조정되고 있음

목재 주요 품목별 수입 현황
(5월 누적)

품목	단위	2019년 5월 누적	2020년 5월 누적	증가율(%)
원목	천m ³	1,122	1,059	-5.6
제재목	천m ³	975	814	-16.5
성형목재	톤	48,802	48,775	-0.1
합판	천m ³	638	720	+12.9
파티클보드	천m ³	551	546	-0.9
섬유판	천m ³	160	100	-37.5
목재펠릿	천 톤	1,390	1,139	-18.1

자료 : 산림청 해외목재유통정보(2020.06.26.), 항만수요예측센터 제작성, [http://www.forest.go.kr/kfswweb/cop/bbs/selectBoardArticle.do?nttd=3146631&bbsId=BBSMSTR_10678&pageIndex=1&pageUnit=10&searchTitle=title&searchCont=&searchKey=&searchWriter=&searchDept=&searchWrd=&ctgryLrcls=&ctgryMdccls=&ctgrySmcls=&ntcStartDt=&ntcEndDt=&orgId=&mn=NKFS_02_01_11_05\(2020.07.15. 검색\)](http://www.forest.go.kr/kfswweb/cop/bbs/selectBoardArticle.do?nttd=3146631&bbsId=BBSMSTR_10678&pageIndex=1&pageUnit=10&searchTitle=title&searchCont=&searchKey=&searchWriter=&searchDept=&searchWrd=&ctgryLrcls=&ctgryMdccls=&ctgrySmcls=&ntcStartDt=&ntcEndDt=&orgId=&mn=NKFS_02_01_11_05(2020.07.15. 검색))

9) 고철

① 고철 공급 대비 수입 비중 역대 최저치 기록²⁷⁾

- 📌 '20년 5월 기준 국내 고철 공급량(시중구매+자가발생+수입) 대비 수입 비중이 17.2%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함
- 5월 기준 고철의 수입량은 31만 8천 톤으로 전년 대비 41.8% 급감하였으며 '19년 12월 이후 6개월 연속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 하락세를 기록함²⁸⁾
- 📌 수입의존도가 감소한 이유는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감소 혹은 국내 고철 자급능력 향상으로 추정할 수 있음
- 실제 '20년 1~5월 조강생산능력은 전년 대비 5.3% 하락하였으며 시중구매량 비중 역시 전년 대비 3.3%p 증가한 60.6%를 기록함
- 📌 업계는 수입비중은 낮으나 여전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고철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수입비중의 급격한 하락은 내수가격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함
- 📌 한편 다른 관점에서는 자급률 향상에 따른 본격적인 수출국 전환의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함

27) 스크랩워치(2020.07.02.), [http://www.scrapwatch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6795\(2020.07.15. 검색\)](http://www.scrapwatch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6795(2020.07.15. 검색))

28) 한국철강협회 Steel Data, [http://steeldata.kosa.or.kr/\(2020.07.15. 검색\)](http://steeldata.kosa.or.kr/(2020.07.15. 검색))

10) 철재

① '20년 5월 세계 조강생산량 전년 동월 대비 8.7% 감소한 1억 4,877만 5천 톤 기록

조강생산량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전월 대비 소폭 완화되었으나 5월에도 모든 지역에서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기록함

- EU와 남미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5.7%(-328만 8천 톤), 21.6%(-111만 3천 톤) 감소하였으며 북미의 경우 감소세가 심화되어 같은 기간 34.5%(-296만 5천 톤) 감소함

조강생산량이 가장 높은 아시아도 전년 동월 대비 3.5%(-409만 1천 톤) 감소함

- 인도와 일본이 전년 대비 각각 39.1%(-370만 1천 톤), 31.8%(-275만 8천 톤) 감소하였으나 중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같은 기간 4.2%(+370만 2천 톤) 증가하여 감소량을 일부 상쇄함

(단위: 천 톤, %)

'20년 5월 세계 조강생산량

구 분	2019년		2020년		증감률	
	5월	누적	5월	누적	당월	누적
EU(17)	12,813	63,090	9,525	52,280	-25.7	-17.1
Other Europe(9)	9,363	45,540	8,772	43,660	-6.3	-4.1
North America(2)	8,585	42,557	5,620	36,148	-34.5	-15.1
South America(10)	5,162	25,815	4,049	21,786	-21.6	-15.6
Middle East(5)	6,453	30,484	5,413	30,023	-16.1	-1.5
Africa(3)	1,207	6,399	700	4,997	-42.0	-21.9
Oceania(2)	550	2,520	530	2,425	-3.7	-3.8
Asia(11)	117,962	547,511	113,871	533,822	-3.5	-2.5
- China	88,565	403,879	92,267	410,977	4.2	1.8
- India	9,468	47,543	5,767	35,851	-39.1	-24.6
- Japan	8,674	42,292	5,916	36,604	-31.8	-13.4
- South Korea	6,275	30,073	5,387	27,407	-14.1	-8.9
- Taiwan, China	1,934	9,610	1,730	8,696	-10.6	-9.5
Others	866	4,405	260	2,799	-70.0	-36.5
World	163,003	768,321	148,775	727,941	-8.7	-5.3

자료 : 세계 철강 협회, www.worldsteel.org(2020.7.15 검색)

주 : 매월 업데이트됨에 따라 전월 수치가 재확정됨

② '20년 세계 철강 수요 금융위기와 비슷한 수준 감소 전망²⁹⁾

한국철강협회의 재료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코로나19가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슈리포트를 발표함

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요 수요산업 침체에 따라 '20년 철강수요는 금융위기 당시('09년, -6.3%)와 비슷한 6.4% 감소한 16억 5,400만 톤 전망

-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두 자릿수대 감소가 예상되며 특히 미국이 -22.9%로 감소세가 가장 가파를 것으로 전망함

29) 한국철강협회 재료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, 2020년 2분기 이슈리포트 '코로나19가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'(2020.07.14.), http://www.isckorea.or.kr/industry_reference_view.do(2020.07.15. 검색)

- ☞ 국내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이 4월부터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2분기 내수 및 수출 감소가 우려됨
 - 국내 내수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의 동반 침체로 '09년 이후 첫 5천만 톤 이하가 전망되며 수출의 경우 글로벌 수요 감소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에 따라 3천만 톤 이하로 전망됨
- ☞ 올 하반기부터 수요가 서서히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완벽한 V자 회복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함
 - '21년 전 세계 철강수요는 전년 대비 3.8% 반등한 17억 1,740만 톤으로 전망되었으나 이는 코로나19 이전해인 '19년 17억 6,650만 톤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전망임

11) 자동차

① 주요 자동차 시장, 코로나19에 따른 침체 정점 지나 하반기 회복 기대³⁰⁾

- ☞ 세계 주요 자동차 시장 1분기 승용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7.5% 감소함
 - 세계 7대 자동차 시장은 미국, 유럽, 중국, 인도, 멕시코, 브라질, 러시아임
 - 미국·유럽 시장은 4월 코로나19에 따른 이동·접촉 제한 등의 조치로 자동차 생산·판매가 대부분 중단되면서 저점을 기록함
- ☞ 5월부터 미국, 서유럽 5개국에서 이동 제한이 완화되고 판매가 증가하는 등 판매 회복 조짐을 보임
 - 미국 시장 자동차 판매는 4월 전년 동월 대비 46.6% 감소에서 5월 29.5% 감소로 감소폭이 줄었으며, '20년 4월 코로나19 이전('20년 2월) 대비 1% 미만까지 떨어졌던 자동차 생산량도 5월에 20% 이상으로 회복(2월: 1,108만 대, 3월: 699만 대, 4월: 6만 대, 5월: 261만 대)
 - 서유럽 5개국의 자동차 판매는 4월에 전년 동월 대비 83.8% 감소했으나, 5월부터 이동제한 완화·판매망 영업 재개로 5월 감소율이 50%대 하락에 그치는 등 판매 회복 조짐이 나타남

(단위: %)

세계 주요 자동차시장
전년 동월 대비 판매 증가율

구분	1월	2월	3월	4월	5월
미국	-0.2	8.4	-37.9	-46.6	-29.5
서유럽 5개국	-8.1	-7.2	-55.5	-83.8	-59.5
중국	-20.5	-81.7	-48.4	-3.0	7.0

자료 :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보도자료(2020.06.25.), http://www.kama.or.kr/BoardController?cmd=V&boardmaster_id=Bodo&board_id=428&menunum=0002&searchGubun=&searchValue=&pagenum=1(2020.07.15. 검색)

주 : 1) Wards auto, ACEA, Marklines 자료를 기반으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작성

2) 서유럽 5개국 : 독일, 프랑스, 이탈리아, 스페인, 영국

- ☞ 주요 완성차 생산국들은 신차 구매보조금 등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는 등 판매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
 - 프랑스는 내연기관차 포함 신차구매 보조금 등 80억 유로(약 11조 원) 규모로 자동차 산업을 지원(2020.05.26)할 예정이며, 독일은 부가가치세 감면, 전기차 구매보조금 확대 등 1,300억 유로(약 180조 원)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(2020.06.04.)함

30)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보도자료(2020.06.25.), http://www.kama.or.kr/BoardController?cmd=V&boardmaster_id=Bodo&board_id=428&menunum=0002&searchGubun=&searchValue=&pagenum=1(2020.07.15. 검색)

- 이탈리아는 내연기관을 포함, 신차구매 보조금(대당 최대 4,000유로) 지급을 검토중(2020.06.05.)이며 스페인은 신차구매 보조금(대당 최대 4,000유로) 등 37억 5천만 유로(약 5조 원) 규모로 자동차 산업을 지원(2020.06.12.)할 예정임

② 글로벌 자동차 시장, 수요 감소에 따른 인력 감축 계획 발표³¹⁾

- ✎ 코로나19 팬데믹으로 1~5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29.7% 감소한 2,622만 6천 대 판매 실적을 기록함
- 1~5월 완성차 판매량은 미국(-22.9%), 유럽(-40.2%), 중국(-24.8%)에서 모두 감소했으며, '20년 판매량은 LMC Automotive가 15.2% 감소('20.04.), IHS Markit이 22% 감소('20.06.) 전망함
- ✎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확대에 구조조정 및 인력감축 계획을 발표하고 있음
- GM은 자율주행 자회사 인력 8% 감축('20.05.) 및 미국 테네시주 3교대 인력 680명 감축('20.06.)함
- 르노는 슬로베니아 공장 인력 3,200명 중 400명을 감원('20.05.)했으며 프랑스 공장 4,600명 포함 글로벌 6개 공장에서 15,000명 인력감축 계획을 발표('20.06.)함
- BMW는 계약직 근로자 1만 명에 대한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을 계획('20.06.)이며 희망퇴직 지원을 통한 정규직 5천 명 감원 검토('20.05.) 중임
- 다임러는 '22년까지 1만 명 감축할 계획('19.11.)이었으며 '25년까지 추가 1만 명 감축을 발표('20.06.)함
- 닛산은 미국 공장 1만 명, 영국 공장 6천 명, 스페인 공장 3천 명을 포함 글로벌 공장 2만 명 규모의 인력 감축을 고려('20.05.) 중임
- 재규어-랜드로버는 영국 공장의 계약직 1천 명 이상을 감축할 계획('20.6.)임
- 미쓰비시는 태국 공장 인력감축을 추진('20.05.) 중이며, 애스턴마틴(5백 명), 벤틀리(1천 명), 맥라렌(1,200명) 등도 인력감축 계획을 발표('20.06.)함
- ✎ 우리나라 완성차업체들은 코로나19 사태에도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고 있으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음
- 업계는 생산라인 운영속도를 조정하는 등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나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, 유럽, 남미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감소 확대에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완성차업체의 고용유지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임

31)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보도자료(2020.07.16.), http://www.kama.or.kr/BoardController?cmd=V&boardmaster_id=Bodo&board_id=431&enunum=0002&searchGubun=&searchValue=&pagenum=1(2020.07.17. 검색)

12) 잡화

① '20년 5월 국내 기계 산업의 수출 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31.2% 감소한 117억 9,100만 달러, 수입 금액은 동 기간 3.6% 감소한 94억 4,700만 달러 기록³²⁾

- ✎ 수출은 모든 업종에서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수입 부문은 정밀기계 수입금액만 전년 동월 대비 20.1% 증가함

32) 한국기계산업진흥회, 기계산업 통계월보 7월호(2020.7.13.), [https://www.koami.or.kr/data/industryView.do\(2020.07.20. 검색\)](https://www.koami.or.kr/data/industryView.do(2020.07.20. 검색))

- 수송기계 부문의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수송기계 하위 품목인 조선업의 5월 수출과 수입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40.3%, 131.9% 증가함

(단위: 백만 달러, %)

'20년 5월 기계산업
업종별 품목동향

구분	수출		수입	
	금액	증감률	금액	증감률
기계산업	11,791	-31.2	9,447	-3.6
일반기계	3,606	-24.2	3,018	-1.9
전기기계업	2,179	-21.2	1,746	-7.6
정밀기계업	1,190	-18.0	2,057	20.1
수송기계업	4,163	-42.9	1,998	-8.1
조선	1,507	40.3	1,325	131.9
금속제품업	653	-27.2	627	-34.0

자료: 한국기계산업 진흥회, 기계산업 통계월보 7월호(2020.7.13.), [https://www.koami.or.kr/data/industryView.do\(2020.07.20](https://www.koami.or.kr/data/industryView.do(2020.07.20) 검색), KMI 재작성

🌊 국가별 수출 금액은 중국(-21.8%)과 미국(-39.4%), 베트남(-19.8%), 일본(-30.7%) 등 주요 수출 대상국 대부분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함

- 수입 금액의 감소폭은 수출 대비 적으며 베트남으로부터의 기계 수입 금액은 전년 대비 8.2% 증가하였음
-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됨에 따라 세계 대부분 지역의 제조 경기가 둔화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아시아(-26.0%), 북미(-42.9%), 유럽(-34.5%), 중동(-25.7%), 중남미(-56.5%) 등 모든 지역으로의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0~50%대까지 감소함

13) 유류·화학공업생산물

① 대한석유협회, 코로나19 이후 석유가스 산업에 대한 해외리포트 발간³³⁾

🌊 석유가스 업계의 과거 15년간 연평균 총 주주수익은 S&P 500 평균수준보다 낮은 수준

- 특히, 석유가스업계는 더 이상 신규유전 개발에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과거와 같은 유가 상승 시기가 다시는 도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
- 코로나19로 인한 수요회복은 단기적으로 최소한 2년이 걸릴 것이며 장기적으로 기후, 환경 이슈 등으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어 투자자 및 대출 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

🌊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석유가스기업들의 탄력적인 생산능력으로 대응 능력 확보 주문

- 석유가스 기업들은 자산재분배를 통해 저수익사업을 과감하게 탈피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 에너지 기술에 주력하여야 함
- 또한 과감한 M&A와 운영모델 재평가를 통해 비용경쟁력을 실현하여야 하며 이미 선두 기업들은 지금도 보안, 디지털, 인공지능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음
-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, 협력 모델을 만들고 속도와 품질 향상 또한 미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언급함

33) 대한석유협회 글로벌 오일 뉴스레터 (2020.06.12.), [http://www.petroileum.or.kr/ko/meterial/meterial6.php?option=&keywo rd=&category=&id=1873&page=1&mode=re ad&b_type=\(2020.07.16](http://www.petroileum.or.kr/ko/meterial/meterial6.php?option=&keywo rd=&category=&id=1873&page=1&mode=re ad&b_type=(2020.07.16) 검색)

② LG-한화, 북미 진출을 위한 미국 에탄크래커시설 인수전 참여³⁴⁾

최근 저유가로 인해 에탄크래커시설 가치가 낮아짐에 따라 글로벌 석유화학사들의 에너지화학업체인 사솔(Sasol) 인수 경쟁이 심화됨

- 과거 안정적이라고 평가되던 미국 석유업체들은 저유가가 시작된 3월 이후 재무실적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신용도가 위험등급으로 하락함
- 사솔도 국제유가하락과 공급과잉으로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인수 규모는 약 2조 원 수준임
- 이번 인수전에는 LG, 한화, 국내 사모펀드뿐만 아니라 글로벌 석유화학사들인 셰브론, 엑손 모빌, 라이온델바젤 등 6곳이 참여하여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
- 현재 국내 기업 중 롯데케미컬이 미국내 에탄크래커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, 업계는 최근 미국 셰일오일 가치 하락이 미국 시장 진출의 기회로 보고 있음

34) 한국석유화학협회 회원사 동향
(2020.06.18.), [http://www.kpia.or.kr/index.php/bbs/view/id/100741/page/3/term_id/6/v_mode/user\(2020.7.18. 검색\)](http://www.kpia.or.kr/index.php/bbs/view/id/100741/page/3/term_id/6/v_mode/user(2020.7.18. 검색))



연구책임자

하태영 항만수요예측센터장

연구진

이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

이경한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

안승현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

이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

신정훈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

천민수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

감리

김범중 항만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

항만과 산업

국내 항만 및 품목 동향

발행일 2020. 7. 27.

편집 겸 발행인 장영태

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
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(동삼동)
전화 051) 797-4800 | 팩스 051) 797-4810
www.kmi.re.kr

편집디자인 공감
전화 070-4407-6252 www.grokw.net